

광주 선운지구 친수공원 ‘파크골프장 전략’...주민들 ‘원성’

동호회 등 4년 넘게 무단 점유
산책 주민에 “비켜라” 호통도
1천명 ‘단속 진정서’ 제출 불구
區 “하천법 적용...처벌근거 무”

광주 선운지구 친수공원이 파크골프 동호회
의 무단 점유로 4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관리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오전 9시께 광산구 선운지구 친수공원. 이
른 시간임에도 공원 한쪽에는 이미 50여명 이상
이 모여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었다.

말뚝과 줄로 구역을 구분했고 파란색, 주황
색의 ‘홀 번호’가 적힌 깃발이 바람에 흔들렸
다.

공원 잔디밭 곳곳은 골프공에 파인 흔적으로
움푹 패어 있었다. 또한 파크골프를 치지 않는
반대쪽은 잔디가 자라 있는 반면, 파크골프를 치
는 구역은 잔디깎는 기계가 지나간 흔적이 선명
히 남아있었다.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친수공원에서 파크골프 동호인이 파크골프를 치고 있다. 공원 한쪽을 말뚝과 줄을 사용해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무단 점유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연상 기자

형형색색의 모자, 선글라스, 장갑 등 골프 복
장과 파크골프채를 갖춘 이들은 연신 ‘나이스
샷’을 외치며 차례로 스윙을 반복했다.

‘특정 공간을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사람들
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삼가주세요’라는 현
수막이 무색하게 공원의 일부가 사실상 파크골

프장으로 변해 있었다.
파크골프를 즐기던 한 이용객은 “1년에 2만원
만 내면 계속 칠 수 있어 인근 사설 골프장보다
훨씬 낫다”며 “우리 동호회에서 잔디도 깎고 관
리까지 다 한다”고 말했다.

운동을 하던 인근 주민 고모(60)씨는 “처음엔

한 두 명이 치더니 지금은 50-60명씩 모인다”며
“주민 1천명이 단속 진정서를 냈는데도 구청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하소
연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29)씨는 “강아지를 산책시
키다 파크골프를 치는 어르신에게 ‘비켜라’는 말

을 들었다”며 “몇 년째 모여서 치시길래 정식 허
가를 받은 줄 알았다”고 전했다.

인터넷 선운지구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주민은 “파크골프를 치
는 분들이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잔디를 깎고 구
멍도 때우더라”며 “이 정도면 사실상 ‘관리자’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뉴스에 나와도 소용이 없으
니 우리가 직접 움직이자”며 “곧 선거철이니
광산구 정치인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야 한
다”고 호소했다.

해당 친수공원은 2012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
로 황룡강 인근에 조성돼 일반 도시공원과 달리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공원녹지법상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시설물’ 처벌 조항이 적
용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근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광산
구청을 계도에 나서고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
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현행 하천법상 불법 시설
물 점용으로 볼 순 없어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광주시, 광주환경공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상 기자

“열심히 살아야지” 동생 편잔에 칼 휘두른 형

법원, 징역 1년6개월·집유 4년 선고

친동생으로부터 “열심히 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칼을 휘두른 형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
친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대)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4년
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소
재 식당 앞에서 동생 B씨와 그의 여자친구, 자
신의 연인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어머니가 가게를 몇 번이나 차려줬는데 열심
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분개한 A씨는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나
와 B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를 본 자신의 여자친구와 B씨의 연인이 만

류하자 A씨는 그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장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
고 피해자 3명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
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
다. /안재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18 폄훼·내란 옹호’ 사죄해야”

오늘 ‘5·18민주묘지’ 참배 등

광주지역 81개 단체 공동성명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을 두고 강
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18민주항쟁기동태극대동지회와 오월어머
니집, 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 지역 81개 시민

단체는 5일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
동혁 대표는 사죄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
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광주 방문은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며 “호남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
용하려는 위선적 행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과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부장판사로서 전두환의 불출석을 허가

하며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켰고, 내란 주범인 윤
석열의탄핵 기각을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내세워 군사 독재 정
권에 희생된 5·18 영령을 참배한다는 것은 진정
성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광주진보연대도 성명을 내고 “장 대
표의 5·18민주묘지 참배를 거부한다”며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알박한 수작”이라고 꼬
집었다. /이연상 기자



남구 ‘건강걷기 대회’ 생활속건강운동확산을 위한 건강걷기 대회가 5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근린공원에서 열려 월산동 주민 등 참여자들이 산책길을 걷고 있다. /김태기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교수 행세 유흥주점 등서 ‘상습 무전취식’ 70대 구속

대학교수 행세를 하며 광주와 전북 등 지역
곳곳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70대가 구속됐다.

5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A(7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
받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의 한 유흥주점에서 약 7만원어치의 양주와 안
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주를 비롯한 전주 등
전북 일대에서도 60여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
으로 상습 무전취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겨우지가 불분명하고 누범기간등을 이유로 구
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
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연상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를호
220603-중-139779